

격 려 사

먼저 오늘 금하 광덕 큰스님 12주기에 맞추어 거행되는 불광법당 착공식에 초대해주신 회주 지홍스님과 불광사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곳 불광사는 광덕스님의 혜안과 원력으로 현대 한국불교사에 큰 획을 그은 역사적인 도량입니다. 큰스님께서는 일찍이 ‘인간의 생명은 부처님의 무량공덕생명

**이므로 영원불멸하는 존재'임을 역설
하시며 대각사에서 불광법회를 여시어
대중교화에 앞장서셨습니다. 그리고
시대를 앞서가는 혜안으로 새로운
포교방법을 통해 우리 한국불교의
선구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월간 불광을 통한 문서포교활동과
불광법회를 통한 의식(儀式)포교활동,
그리고 찬불가 보급을 통한 문화포교
활동이 그것입니다. 또한 80년대
들어 도시화가 가속되는 상황에 이곳
잠실벌에 불광법당을 여시면서 도심**

포교활동의 선구적 역할을 열어내셨습니다.

큰스님께서 입적하신 이후에도 불광사의 문도 스님들과 불자님들께서는 큰스님의 원력을 이어 불광사를 서울의 대표적 도심사찰, 포교 1번지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문서포교의 산실이었던 불광출판사는 불교계 대표 출판사로 자리매김하였고, 불광유치원은 어린이 포교의 선두주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송파노인요양센터를 위탁하고, 불광연구원을 설립

하는 등 지역 포교활동과 수행, 교화 활동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곳 잠실, 송파지역 포교의 상징이 되어온 불광사가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공간의 제약이 계속됨으로 인해 오늘 미래 불광사의 성장과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새 법당을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큰스님의 숨결이 남아 있는 기존 법당을 허물고 새로운 법당을 짓는 일에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큰스님의 원력을 계승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중창되는 불광사는
광덕 큰스님의 사상을 더욱 크게
펼쳐내는 곳, 지금 한국불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곳, 새로운 포교의
방법을 창출하는 선구적 역할을 더욱 더
공고히 하는 불광사가 되어주시기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만약 80년대 당시에 이곳에 불광법당을
짓지 않았다면 이곳 잠실, 송파지역은**

아직도 포교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허허벌판이었던 이 잠실벌에 광덕 큰스님께서는 보리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부대중 여러분이 오늘까지 도심포교 1번지 불광사로 키워왔습니다.

모쪼록 이 큰 불사가 큰스님과 여러분들의 큰 원력과 불보살님의 가피에 힘입어 원만 성취되기를 기원하며 신묘년 새해를 맞아 큰 역사를 시작하시는 회주 지홍스님을 비롯한 불광사 사부대중 여러분에게 부처님의

**자비 광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 2555년 2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